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3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 당 자	• 안전협력팀장 • 담당자	허창렬 ☎440-5751 윤경아 ☎440-57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노후·고위험 시설 451개소 집중안전점검

- 4.17일~6.16일까지,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배포해 안전문화 운동 확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시 관련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와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451개소로 건설공사장·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낙시어션 등의 시설과 주민점검 신청대상으로 접수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주민점검신청 대상시설은 시민이 직접 재난위험요소를 찾아 신청한 것으로 노후공동주택의 지붕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이웃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점검대상시설은 관리주체와 분야별 재난안전전문가로 구성된 226명의 헬프미안전점검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점검한다. 집중안전점검 시에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 계측자료도 활용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용과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토록해 집중안전점검의 이해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집중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은 예산을 활용해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시설로 보수·보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시설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재난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점검 체계확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집중안전점검 관련사진 >

